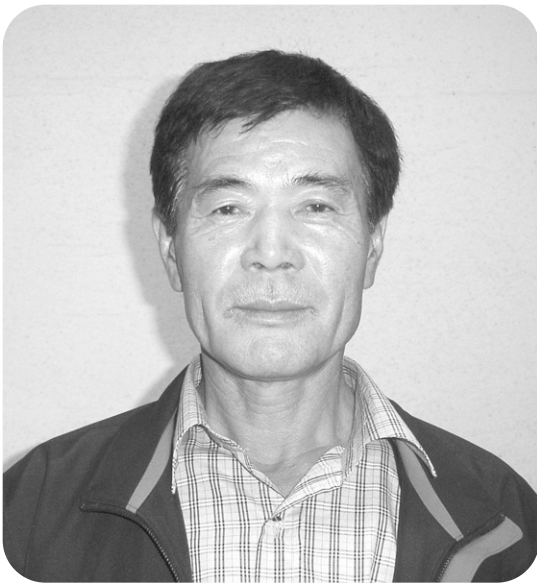


## 포천육계지부 한 마음 한 뜻으로



▲ 포천육계지부 김낙현 지부장

**포**천육계지부(지부장 김낙현)는 최근 회원수가 65명에 이르고 있을 만큼 지역 양계농가들의 지부참여도가 높아만 가고 있다. 불과 올해 3월전만 해도 회원이 10여명에 그쳤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포천육계지부가 보여주는 지부 활성화 비결을 찾아보았다.

### 포천육계지부 부활을 위한 첫 발걸음

포천육계지부 과거 20년전에서 육계농가들의 활동이 왕성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회원들의 결속

력이 약해지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군납위주 양계농가 10명의 회원들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포천육계지부는 다시 한 번 20년전 포천육계지부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듯 김낙현 지부장을 주축으로 지부회원들의 뜻을 모아 지부 활성화를 위한 첫 걸음을 시작했다.

올해 3월부터 포천 축산단체협의회에서 육계활성화 차원으로 김낙현 지부장과 박성훈 총무를 필두로 양계농가들을 직접 방문하며 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지부활성화의 중요성을 피력하기 시작했다. 현재 포천육계지부 회원은 65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회원농가 사육규모도 해도 200만수가 넘을 정도로 과히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발로 뛰며 지부의 중요성 피력

그 시작에는 김낙현 지부장과 박성훈 총무 등 임원진들이 발로 뛰어다니는 노력이 밑바탕이 되었다.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소독약, 감보로 백신, ND 백신 등 정부지원을 지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창구를 일원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냈을 뿐만 아니라 시군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1백만원대 백신 분무기 10대를 지원받는 실효도 거둘 수 있었다. 또한 포천지역은 양계규모가 크기 때문에 질병발생시 피해가 큰 점을 시에 피력

하여 질병관련 지원과 소독기 수리지원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렇듯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결과물들이 하나하나 나타났으며 그 결과 회원들도 점차 지부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회원수도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한편 포천육계지부는 육계농가회원 외에도 지부의 필요성을 느낀 토종닭 11농가, 종계 4농가, 삼계 3농가들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비록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역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없었던 농가들의 어려움을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한가족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낙현 지부장은 '이제는 개인이 아닌 힘을 모아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야만 가능하다. 회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단결하여 지부를 활성화하고 이를 토대로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지원이 필요한 양계를 하는 전업농가들을 위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 월례회의, 농가 정보공유의 장

포천육계지부는 포천축협 내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포천축협 유통사업소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한다. 이곳은 육계사육 회원들이 모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이다.

월례회의에서는 육계사육동향 토의 외에도 정부정책과 지원사항 공고와 지역 수의사를 통한 육계 프로그램 교육 세미나 등 다양한 내용들로 발전시켜 가고 있다. 또한 겨울철을 맞이하여 정부의 AI



▲ 김낙현 지부장을 비롯한 포천육계지부 회원들

방역정책과 농가 소독 등 AI 차단방역을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왕겨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회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회원들간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부 내에서도 12개 지역별로 세분화 하여 운영위원을 두면서 회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지속하도록 하여 조직의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직까지 다소 미약한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임원진들의 노력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져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지부로 거듭날 것으로 자부한다.

### 지부회원 결속, 최우선 과제

포천육계지부는 올해 최대 목표로 단연 지부회원 결속을 꼽는다. 우선 회원들이 모여 규합된 의견을 가져야만 정부지원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회원수가 증가했다지만 무엇보다 회원의 결속이 바탕이 되어야 지속적인 지부발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회원들이 흩어졌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지부로 만들겠다는 각오이다.

박성훈 총무는 “올 한해 고생도 많았지만 그래도 회원들이 이러한 노력에 함께 동참해주고 알아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전하며, 지부발전을 위해 김낙현 지부장을 필두로 지부의 초석을 확고히 다져나가겠다고 전했다. (정리 | 기영훈 기자)

